Q 중공군은 왜 금성지구의 국군을 겨냥했는가?

A 금성지구전투는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반공포로 석방 이후 휴전회담이결렬되면서공산군의 보복차원에서이루어진1953년도중부전선의대규모공세였다.

1953년 7월 중공군은휴전을 코앞에 두고 국군 제2군단이담당하고있는 금성지역에1951년 춘계공세이후 최대의 대규모공세를 펼쳤다. 공산군은 유엔군의보복을유발하지않는 범위 내에서최후의공세를감행, 점령지역을최대한확대함으로써그들이 ‘ 전쟁에서최종적으로승리했다 ’는 사실을 대내외에과시하고자했다. 또한중공군은한국정부의북진통일 주장과휴전반대운동을 잠재우고, 한국군에심각한타격을주기 위해 국군 제2군단이담당하고있는 화천 북방의금성 돌출지역을선정해집중적인 공세를 감행했다. 중공군이금성지역을공격목표로선정한 것은 한국군 담당지역중에서 지형이 험준해기갑 및 화력지원이취약하고, 북쪽으로 돌출돼있어 작전이비교적쉬울 것으로판단했기때문이다.

휴전 무렵 유엔군과 공산군의 전력 증강

1953년 초 휴전회담이 포로송환 문제에 부딪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쌍방의 전선 부대들은 회담 경과를 지켜보면서 소강상태를 유

지하고 있었다. 그동안 쌍방은 1952년말 까지 계속된 치열한 고지 쟁탈전으로 조정된 전선을 정비하면서, 좀더 유리한 방어선을 확보하고 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추구했다.

이 무렵 전선의 공산군은 전력이 현저히 증강돼 중공군 135만 명, 북한군 45만 명 등 180만 명의 대병력이 배치돼 있었다. 또한 그들의 화력은 크게 강화됐고, 진지도 견고하게 구축했으며, 전투물자도 충분히 비축한 상태여서 공산군은 마음만 먹는다면 대규모 공세를 감행할 수 있는 여력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 종전(終戰) 전략을 추진하고 있던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대장은 공산군의 전력증강 실태를 보고받고 크게 놀랬다. 따라서 클라크 장군은 제8군사령관 밴플리트 대장이 건의한‘ 한국군을 20개 사단으로 증편하는 계획 ’을 강력히 추진하게 됐다. 현실적으로 한국군의 전력증강 조치는 공산군의 전력증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휴전 후에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휴전이 성립되면, 휴전협정의 규제로 인해 대규모의 중장비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군의 전력증강은 휴전협정 이전에 이루어져야 했다. 이에 따라 1953년 5월 1일에는 제3군단이 재창설되고 6월 18일까지 제26·27사단이 창설됨으로써 한국군은 휴전 발효 이전까지 3개 군단 18개 사단의 전력을 갖추게 됐다.

금성지구 전투의 배경

공산군은 유엔군의 보복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국정부의 북진 주장과 휴전반대 운동을 잠재우고, 한국군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위해 국군 제2군단의 담당지역인 화천 북방의 금성 돌출지역을 선정해 집중적인 공세를 감행했다. 이를 위해 중공군은 5월에 이미 이 지역에서

전초전을 감행해 한국군의 방어준비상태를 시험했다. 1953년 6월 10일 밤 중공군은 1개 군을 투입해 국군 제2군단의 수도고지(제8사단)와 수도고지 오른쪽 949 - 973 - 883고지(제5사단) 일대를 9일간 집중 공격하여 13㎞의 정면에서 4㎞를 남진했다. 반면 국군 제8사단과 제5사단은 북한강 남안까지 철수해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했다. 이때 유엔군이 전폭기의 집중 공격으로 중공군의 공격기세가 둔화되면서 6월 18일 전선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이 때 공산군은 최종공세의 성공에 만족하면서 6월 18일을 전후해 이루어질 휴전협정 조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공산군이 예측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중공군의 공세가 마무리된 6월 18일 자정 이승만 대통령은 27,000여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이로 인해 조인 직전에 있던 휴전회담은 중단되고, 전국은 초긴장 상태로 치달았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세계의 이목은 공산군의 반응을 주시했다. 이때 공산군은 휴전회담 자체를 깨려는 행동은 자제하는 듯했지만, 전선에서는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려는 징후가 속속 나타났다.“ 반공포로 석방으로 빼앗긴 그들의 이미지 손상을 군사작전을 통해 갚겠다. ”는 의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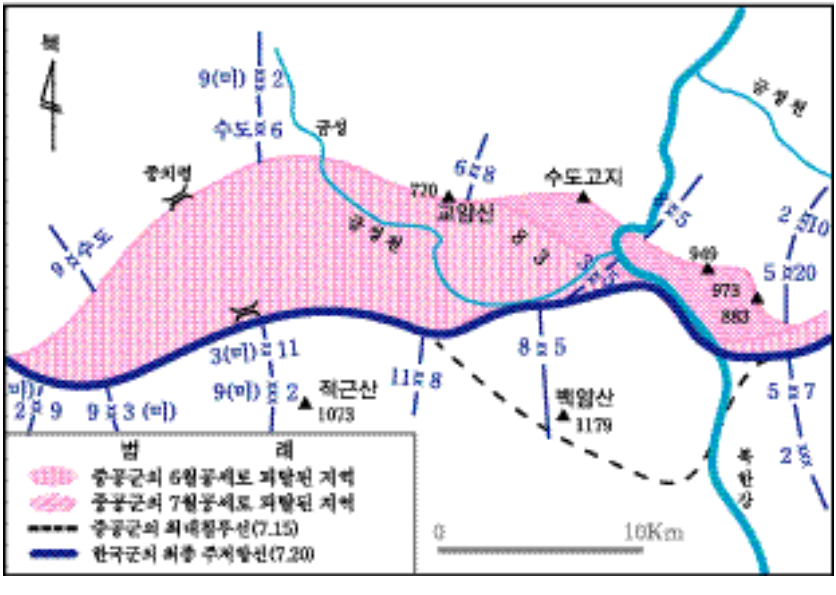
이를 위해 중공군은“ 6월 공세에서 얻은 효과가 한국정부의 반공포로 석방으로 상쇄됐다. ”고 판단하고, 화천저수지를 목표로 다시 한번 최종 공세를 취하기로 했다. 중공군이 최종 공세를 통해 화천저수지를 점령할 수 있다면, 1951년 5월 현리 지구에서 당한 제6차 공세의 뼈아픈 패배를 만회하고,“ 한국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 북진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군에 패배를 안겨주어 휴전에 순순히 응하게 하고 동시에 휴전 후의 도발 가능성에도 쐐기를 박을 수 있다. ”는 계산하에 대규모 공세를 단행했다.

중공군 최후의 대규모 공세, 금성지구 전투

이처럼 전선의 긴장이 높아지자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대장은 일본에서 정비중이던 미 제24사단과 제187공수연대를 한국에 긴급 재배치했다. 예상되던 중공군의 공세는 7월 13일 밤에 시작됐다. 지난 6월의 공세와는 비교가 안되는 5개 군(군단급)이라는 대병력을 동원해 한국군 제2군단의 금성 돌출부지역을 강타했다.

중공군의 전술은 압도적인 병력으로 금성의 좌우측에서 양익 포위전술을 구사해 선단에 배치된 국군 제6사단과 제8사단의 후방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국군 2개 사단이 포위될 위협에 처하자 제8군사령관 맥스웰 테일러 대장은 국군의 방어선을 금성천 남단으로 조정하고 국군의 철수를 명령했다.

1953년 7월 중공군의 최후 공세(7·13공세) 요도



이에 따라 국군 제2군단과 미 제9군단이 적근산과 백암산을 연하는 선으로 후퇴해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했고, 7월 16일을 기해 중공군의 공세는 저지됐다. 중공군의 공세가 저지되자 국군 제2군단은 즉각 반격으로 전환했으며, 7월 19일에는 다시 금성천과 북한강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했다.

이때 국군은 반격을 계속해 금성천 북방으로 진출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휴전 조인을 고려한 유엔군사령부의 제지로 그 이상의 반격은 중지했다. 이로써 국군 제2군단이 중공군의 최후 공세로 잃었던 지역의 절반 정도를 회복한 가운데 작전이 종료됐다. 이 공세에서 중공군은 31㎞의 정면에서 최대 9㎞ 남진했지만 6만 명 정도의 사상자를 내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정전협정 조인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를 막아낸 국군 제2군단의 금성지구전투 전적비

생각해 봅시다!!

1. 중공군이 7·13공세를 통해 얻고자 했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2. 중공군은 왜 국군 제2군단을 집중 공격했을까??